



사진은
가나다 순

“위기의 광주·전남 내가 살린다”

■ 후보자 잇단 출사표… 불붙은 민주 시·도지사 경선 레이스

6·2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광주시·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일부에선 ‘후보 단일화’설까지 흘러나오고 있

어 막판까지 ‘혼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후보군은 3명에 불과 하나 주승용 의원의 도당위원장 겸직 문제가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자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 광주시장 출마 예상자

이름	나이	정당	직책
강운태	62	민주당	국회의원
박광태	67	민주당	현 광주시장
이용섭	59	민주당	국회의원
전갑길	53	민주당	광산구청장
정동채	60	민주당	전 문화부장관
조영택	59	민주당	전 국회의원
양형일	59	민주당	전 국회의원

▶ 전남지사 출마 예상자

이름	나이	정당	직책
박준영	64	민주당	현 전남지사
이석형	52	민주당	전 합평군수
주승용	58	민주당	국회의원

세종시 수정 3대 시나리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17일로 일주일만 지났지만 세종시의 흥배는 아직까지 가늠을 잡지 못하고 있다. 찬·반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느냐에 따라 당장은 여야의 조기 전당대회, 말개는 6.2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수정안 통과시=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와 스위스 다보스 출장을 마친 뒤 2월초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수정에

정안 재수정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행정부 처 분할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과 콘셉트가 맞는 일부 부처 이전은 타협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정안의 세종시 개념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나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등이 이전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여(與與), 여야(與野) 협상을 통해 재수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수정안 무산시=친박과 야당의 반대가 강고하고, 여론 설득에도 실패할 경우 정부의 수정안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여권은 여건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회 처리를 시도할 수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자칫 여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이 대선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과감히 포기했듯이 세종시 수정도 전격적으로 거둬들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은 떨어지게 되지만, 박 전 대표는 차기 유력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통과 MB 국정 탄력·정총리 도약 재수정 환경부 등 부처 일부 이전 무산 박근혜 차기 주자 임지 탄탄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관문인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위해 이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표 면담 등 각각의 친박 설득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정안이 관철될 경우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이후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 수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정치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정안 재수정시=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친박과 야당 반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의 선택지는 바로 수

광주 7명 2강 3중, 전남 3명 박지사 독주

■ 후보 난립과 판세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의원과 박광태 시장이 '1강1중' 또는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의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 양형일 전 의원이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지사 후보의 경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준영 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

가 뒤를 쫓고 있다.

박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2위 주 의원과 차이가 20% 이상 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유'를 갖고 당분간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주 의원과 이 전 군수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박 지사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캠프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과 이 전 군수는 이미 출마선언을 한 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지

지 기반을 넓히며 지지를 높이기 위해 여념이 없다.

경선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후보별 대립각도 볼 만하다. 정책 이슈화를 통한 후보간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 후보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강 의원과 정 전 장관은 올해 광주시 예산 확보와 관련, 박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며 박 시장과의 대립각을 세웠고,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과 강 의원을 상대로 의원직 사퇴와 시장 출마 여부 여

론조사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석형 전 합평군수는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을 향해 “당원 간담회는 도 위원장 공적 자리를 활용한 인지도 상승과 사조직을 겨냥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도당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각을 세웠다.

■ 경선을 어떻게 되나

각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룰’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배심원 제도와 국민 경선제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자신들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후보는 시민배심원 제도 보다 국민경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국민경선의 경우 중앙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는 가급적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강운태·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이석형 전 합평군수 등이 국민경선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단체장 경선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국민참여 경선 시행시 70% 이상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국민여론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은 최근 민주당 경선방식과 관련해 “중앙당에서 논의되는 시민배심원제를 적극 요청했다”며 “당내 기여도나 정렬성, 민주화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높은 효용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후보들 시민배심원 보다 국민경선 더 선호

■ 관전 포인트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의원직 사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운태·이용섭·주승용 의원은 “현 정부에 맞서 2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당도 의원직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 의원이 “만약 당과 시민이 원한다면 경선 시점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광주시장 ‘후보 단일

화’다. 현재 박 시장과 강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 지지율이 10%대 미만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후보군들 사이에 ‘후보 단일화’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용섭 의원이 현재 후보 단일화에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선 막판 ‘후보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의원직 사퇴·후보 단일화 여부 촉각

조이 여행사
234-3222

98,000~

일본 문화체험

379,000w

419,000~499,000w

549,000w

하이난

799,000w ~

849,000w ~

999,000w / 1,249,000w

1,049,000w / 1,299,000w

무안에서 상해로..

309,000w ~

469,000w ~